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4~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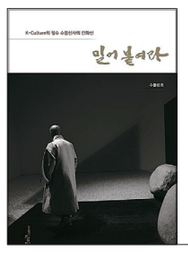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내 안에 삶의 나침반이 있다	법상	아름다운인연	6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토니페르난도	월마
2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 필사 명상	법상	조계종출판사	7	하나인 도리를 아느냐(관응 큰스님 법어집)	관응	새벽숲
3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	법상/용정운	조계종출판사	8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이에게	편집부	선문출판사
4	우리말 독송 지장경	원순	법공양	9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북이랑
5	법화경	김현준	효림	10	반야심경과 마음공부(2017개정판)	법상	무한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중관학 특강	김성철	오타쿠
2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7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일현 함현준	운주사
3	고요함의 지혜	에크하르트톨레	김영사	8	금강경 핵심 강의	우학스님	좋은인연
4	밀어 붙여라	수불	해조음	9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십우도와 함께 걷는 선문답과 간화선 명상수행	인경스님	명상상담연구원	10	성철스님 백일법문 (상)	성철 스님 지음	장경각

수불 스님이 통견한 간화선의 요체



밀어 붙여라
수불 스님
도서출판 해조음
1만8000원

한국 간화선 수행 지침서
연재·강연문·인터뷰 수록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최근 간화선의 원리부터 대중화 비전 등을 아우르는 안내서 '밀어 붙여라'를 출간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 존자에게 이심전심으로 부촉한 법등은 서천 28대를 거쳐 달마 대사에 이르렀다. 선종의 창시자가 된 달마 대사가 전한 법은 결국 선종 전체의 종지가 됐다. 한국의 조계종은 바로 이 종지를 이어 받고 있으며, 오늘날 조계종은 육조 혜능의 조계선법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간화선(看話禪)을 정통 수행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선불교의 정수 간화선의 핵심을 대중이 알기 쉽게 짚어낸 신간이 나왔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최근 불교신문에 연재했던 글과 강연문, 인터뷰를 한데 엮은 책 〈밀어 붙여라〉를 펴냈다.

책은 간화선의 원리를 비롯해 의심이 자라 의단이 타파될 때의 극적인 변화까지 아우른다. 자칫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간결한 문장으로 풀어 가독성을 높였다. 본문은 총 7부로 구성됐다. 1~6부에서는 수행과 선, 간화선, 화두, 의정, 한국불교와 간화선의 사명 등 핵심 주제를 다룬다. 마지막 7부에서는 강연문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 간화선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수불 스님은 마음을 다루는 참선 중에서도 간화선을 '깨달음에 이르는 정확하고 쉽고 빠른 지름길', '최첨단 마음사용법'으로 꼽는다. 간화선이야말로 가장 예리하고 직접적으로 마음의 뿌리를 겨누기 때문이다.

또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명상 열풍을 한국불교 중흥의 기회로 보면서도, 현대 명상의 한계를 지적한다. 즉,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유위법(有爲法)'의 명상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상(相)을 깨고 단박에 마음의 실상을 보게 하는 최상승 '무위법(無爲法)'이자 한국 전통 수행인 '간화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더불어 스님은 명상 수행자들을 잠재적인 간화선 수행자들로 바라본다. 세계적으로 웰빙과 힐링의 유행이 지나가면, 마침내 자성불을 밝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간화선 대중화의 시절인연이 열릴 것이라며 이를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현대인일수록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불교로 나갈 것을 주문한다. 불교를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치는 수행으로 깨달음의 눈을 떠야만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깨달음은 '잘 생각한 끝에 얻는 결론'이 아니라 '생각이 멈추는 자리'에서 열리는 직접 체험이라며, 이 체험으로 이끄는 간화선의 핵심은 바로 '의심'임을 밝힌다.

또 수불 스님은 간화선이 공안 자체를 외우는 수행이 아니라 공안에서 비롯된 의심, 즉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법이라고 역설한다. 역대 조사들은 수행자가 근본에 대해 의심하도록 이끌었고, 그 의심이 극에 달한 자리에서 깨달음이 열리도록 했다. 의심하고 의심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곳에 이르면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정신적 장벽이 무너지고 본래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 화두 공부는 단지 의심을 잠시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뿌리를 뽑는 공부인 것이다.

이를 위해 수불 스님은 스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혼자 힘으로는 간화선 수행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간절한 발심으로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는 당부다. 선지식이 학인을 인도해 눈앞의 정신적인 벽을 뚫고 나가도록 돕는 과정이 곧 간화선의 올바른 길이라고 말한다.

스님이 강조한 수행의 자세는 책의 제목인 '밀어 붙여라'에 응축돼 있다. 화두가 잡히고 살아 있는 의심[활구]이 시작되면, 온갖 장애와 정신적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뒤 돌아보지 않은 채 깨달음을 향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당부다. 이 치열한 구도(求道)의 정신은 책의 첫 장인 프롤로그에서부터 나타난다. 스님은 "생각이 멈추는 자리에서 화두가 시작된다. 한번 화두가 잡들어지면, 앞뒤 돌아보지 말고 밀어 붙여야 한다"고 설한다. 또 스님은 '아무 일도 없었음을 알게 된다'는 제하의 에필로그를 통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독자에게 또 다른 화두를 던진다.

"간화선은 쉽지 않다. 그러나 가장 단순하다. 문제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길이 없어 보인다. 답을 찾겠다는 간절함이 극에 달할 때, 비로소 그 간절함마저 무너지면서 길이 열린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토록 막혀 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 그때 알게 된다.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줄곧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았을 뿐이라는 것을. … 사는 것이 수행이고 수행이 곧 살아가는 일이다.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란 질문이 살아 있는 한 길은 시작된 것이다."

수불 스님은

지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범어사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제방 선원에서 10년간 수선 안거를 성만했다. 1989년 안국선원을 개원하고 2001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을 설립해 국내외에서 '간화선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부산, 서울의 안국선원과 마곡사 및 백담사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중국, 뉴질랜드, 인도, 일본 등 국내외에서 7박 8일간의 '간화선 집중수행'을 300여 회 개설해, 전 세계 3만여 명에게 간화선을 알렸다. 사단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 부산불교방송 사장 등을 지냈다.

동심으로 전하는 부처님 마음



자전거 날다
글 · 그림 한산 스님
그봄출판사
1만5000원



오징어의 초대
글 · 그림 무여 스님
그봄출판사
1만5000원

한산 · 무여 스님 그림동화책
종교색 빼고 불교 지혜 더해

한날한시 동반 출가로 주목받았던 자매 스님이 나란히 그림동화책을 펴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친자매인 한산 스님과 무여 스님. 두 스님이 각각 선보인 동화책들은 종교적 색채 없이 편안하게 읽히지만 숨은 의미를 전해 들으면 불교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묘미가 있다.

언니 **한산 스님의 〈자전거 날다〉**는 도전과 실패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화다. 아이들에게는 도전하는 기쁨을, 어른들에게는 잊고 지낸 첫 순간의 설렘을 선사한다.

이야기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자전거가 생긴 아이의 설렘으로 시작한다. 아이가 용기를 내어 페달을 밟는 순간 몸은 하늘을 날듯 가벼워진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첫 자전거 나들이는 예상치 못한 낙상으로 이어진다. 계단에서 시작돼 바닥으로 쿵 고꾸라진 것이다. 그래도 아이는 넘어지며 생긴 흉터를 '세상에 하나뿐인 내 별'로 받아들인다.

아이의 상처를 온전히 마주하고 다정하게 품어주는 태도는 불교의 '자기 자비'와 맞닿아 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비(悲)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투영해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것이다.

이 책은 새로운 도전이 두려운 아이나 작은 실수에 낙담한 이들에게 상처 역시 빛나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응원을 건넨다. 어린이 법회나 학교, 가정에서 스토리텔링 교재로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실패를 긍정하고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생 **무여 스님의 〈오징어의 초대〉**는 평범한 순간이 특별한 기억으로 변하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려낸 그림책이다.

책은 1990년대 어느 아파트의 저녁 풍경을 배경으로 한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아빠가 구워온 마른 오징어를 세 자매가 나눠 먹는 순간, 주인공 주완이는 오징어와 함께 푸르고 환상적인 바다 세계로 탐험을 떠나게 된다.

어린이에게는 바다 탐험의 상상을, 어른에게는 잊고 지낸 동심과 가족의 온기를 선물하는 이 동화 또한 불교적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다. 세 자매가 작은 오징어를 나누는 모습은 '보시(나눔)의 행복'을, 평범한 먹거리인 오징어를 소중한 친구로 대하는 과정은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식탁 위 음식을 온 우주의 인연으로 바라보는 '연기(緣起) 사상'과 생명에 감사하는 현대적 의미의 '불살생(不殺生) 정신'까지 자연스럽게 일깨운다.

이 책은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배워야 할 어린이는 물론, 이를 지도하는 사찰과 학교, 가정의 교육 효과를 한층 높여줄 것이다.

두 책의 특징은 불교 교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어린이 눈높이의 글과 그림 속에 녹여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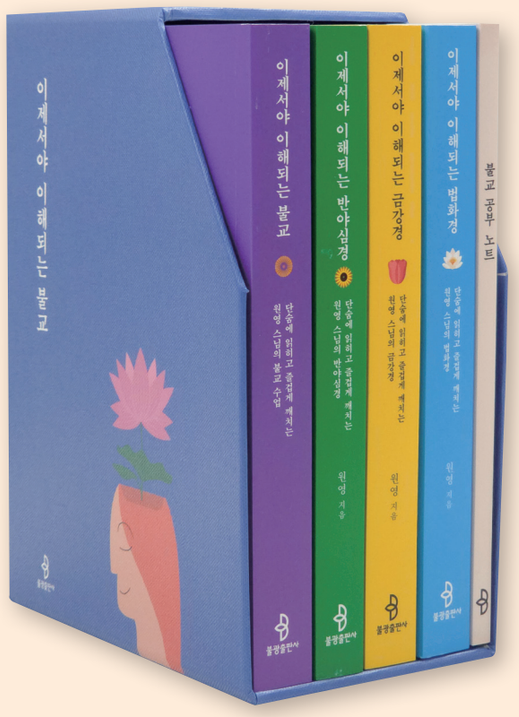
덕분에 이웃 종교인이나 일반 독자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불교적 관점을 접하며 생각의 깊이를 더하기 좋다.

배희정 기자

불교 공부는 어렵지 않다, 원영 스님과 함께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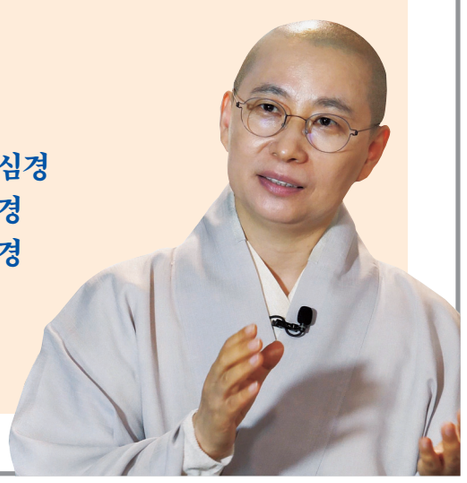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연기 등
주요 교리부터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까지
불교계 대표 베스트셀러 4종과
한정 부록 '불교 공부 노트'를
소장용 케이스에 하나로 담았다!

불교가 처음인 사람도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불교 공부 일타강사 원영 스님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세트!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세트, 전 4권)
원영 지음 | 72,000원

【구성】
•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 [부록] 불교 공부 노트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